

부문별 주요 기사

5월 1일 ~ 5월 31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5월 1일~5월 31일

대내경제 74

<공식경제>

국영 공장, 개인 돈주 사업장에 노동력 파견

북한 당국, 기업책임관리제 적극 장려

북한, 원산 개발에 적극 나서

<전력>

전기 요금 개정 사업 부진

<시장>

시장화 확대에 따라 LPG 사용 증가

대북제재 이후, 북한 내 석탄 유통 증가

도농 간 주택 가격 차이 심각

평양, 아파트 지하창고 월세 방 거래 증가

대외경제 77

<국제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및 투자 방안 검토

<북미관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 계획

<북중관계>

북중 연이은 정상회담과 시장의 반응

<북러관계>

교류협력을 위한 양국 간 회담 개최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

대내경제

<공식경제>

RFA(5.3, 5.8, 5.18, 5.23), 연합뉴스(5.26), 한국경제(5.14)

국영 공장, 개인 돈주 사업장에 노동력 파견

최근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이 돈주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이를 통해 공장 운영자금과 노동자 월급을 해결하고 있다는 보도임. 과거 북한 당국은 8.3노동자를 허용했으나 국영공장 인력의 개인사업장 파견은 엄격히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국영공장과 개인업주 간의 노동력 거래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신문은 풀이함. 이와 관련하여 평안남도지역의 한 소식통은 최근 개인 돈주가 운영하는 대동강 모래 채취장에 국영공장 직원이 파견되어 모래 채취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개인 돈주들로부터 시장가격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돈주들도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노동력을 확보 할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북한 당국, 기업책임관리제 적극 장려

북한당국이 공장기업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책임관리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보도임. 이와 관련하여 대북 소식통은 중앙당국이 지배인들에게 개인 투자를 끌어와 공장을 살리라고 지시하면서 지배인과 돈주의 불법적인 거래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전함. 한 예로, 평안남도 지방공업관리국 계획부는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이 모인 생산계획총화에서 완전한 공장가동으로 생산량 달성과 노동자 월급을 해결한 순천 시멘트연합기업소 경영사례를 소개했다고 전해짐. 중앙에서 원자재 공급이 중단 된 이후 순천시멘트공장은 소성로 3호기를 돈주에게 불법 임대하여 공장 3, 돈주 7의 비율로 이윤을 나눠 공장을 가동시켜 온 것으로 신문은 전함.

북한, 원산 개발에 적극 나서

북한 중앙 당국이 최근 원산 일대를 관광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임.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원산 해양관광지구 건설은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대북제재로 인해 거의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그러나 최근 북한 중앙당국은 원산관광지구를 통해 수백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하며, 건설을 위해 전국에 인력 동원령과 세대마다 건설자금 과제를 부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전력〉

RFA(5.27), 아시아프레스(5.14, 5.28)

전기 요금 개정 사업 부진

북한은 2017년 하반기에 전국의 각 가구마다 적산 전력계(전기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전기 요금 정상화를 꾀하고 전기 절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이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해 전기요금이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적산전력계 보급 사업이 1년이 다 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임. 사업 부진 이유에 대해 신문은 가격이 30달러 이상인 적산전력계를 주민들이 직접 구입해야 하고, 주민들이 전력을 아낀다고 해서 전기를 더 많이 공급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시장〉

RFA(5.14, 5.24, 5.28), 데일리 NK(5.3)

시장화 확대에 따라 LPG 사용 증가

북한의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LPG(액화가스) 사용이 증가했다는 소식임. 이에 평양 등 큰 도시에 가스 충전소가 생기고, 북한 현지에서 LPG 가스통을 생산하지 못해 중국 단둥이나 심양 등에서 빈 통을 수입하는 것으로 전해짐.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LPG 용기는 10kg, 15kg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20파운드짜리 빈 통이 중국 현지에서 인민페 100위안에 거래된다고 함.

북한은 봉화화학공장과 승리화학공장에서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를 가공하여 LPG가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과거 북한은 LPG가스를 역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기도 했지만, 작년부턴 대중 수출길이 막혔다고 대북소식통은 전함.

대북제재 이후, 북한 내 석탄 유통 증가

대북제재로 인해 석탄 수출이 어렵게 되어, 북한 석탄 생산지에서 최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 재배와 배송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임.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증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신문은 대북제재로 양질의 석탄이 북한 내부로 유통되어 석탄 보일러를 이용한 채소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탄광지역에서 비닐하우스가 없는 집이 별로 없으며, 덕천 지역의 경우 80%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다고 전함.

도농 간 주택가격 차이 심각

관료와 돈주들이 거주하는 호화주택과 주변(농촌)지역의 일반주택 가격 간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임. 데일리NK 자체 조사 결과, 평양시 중구역 외성동에 위치한 주택(면적 230㎡) 가격은 약 30만 달러, 평양시 사동구역 삼골동에 위치한 주택(면적 30㎡)의 경우 약 700만 달러 미만으로, 동일한 면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5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됨. 심지어 평양의 최고급주택과 양강도 해산의 저가격 주택의 경우 가격 차이는 3,53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신문은 북한의 권력자, 돈주의 투자에 의한 주택건설과 공급으로 주택가격의 폭등과 같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함.

평양, 아파트 지하창고 월세방 거래 증가

최근 돈주들이 평양시 아파트의 지하창고를 불법으로 개조해 방과 주방을 갖춘 반지하 월세 집을 만들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함. 이러한 반지하 월세집의 주 거주자는 당국으로부터 주택을 배정 받지 못한 주민들과 평양 출신 제대군인들인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반지하 월세 방은 가격은 구조와 크기에 따라 월 50~100달러이며, 지하 월세 방은 20~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함. 평양시에 고층 아파트가 계속 건설되고 있지만 간부들과 과학자들에게 우선 배정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분양금을 선불한 돈주들이 차지하여 비싼 이윤을 부쳐 되팔고 있다고 덧붙임.

대외경제

<국제지원>

매일경제(5.4, 5.10), 한국경제(5.14), 한국일보(5.15)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및 투자 방안 검토

북한판 마셜플랜 실행에 요구되는 막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IMF 가입이 필수이나 이는 통상 3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회원국을 대상으로도 실시한 바 있는 ‘기술적 지원(TA)’과 같은 사례들을 검토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투자를 유도할 것임을 시사함. AIIB 총재는 비회원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금융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역시 여건이 성숙되면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협력 사업을 금지하였으나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었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수적인데, 특히 공공 인프라 개발 사업에는 전략물자인 중장비가 투입되고, 유류 반출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임.

<북미관계>

매일경제(5.24, 5.29), 조선일보(5.14), 중앙일보(5.31), 한국일보(5.29)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 계획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할 경우 ‘마셜 플랜’과 같은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안으로 미국 민간 기업의 북한 진출을 허용하여 전력망 건설과 농업 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언급함.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

고 밝히며 경제적 지원을 공언함. 이에 대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반발하며, 이를 가로막는 군사위협과 제재를 비난함.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승인이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 첫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함. IMF 가입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용자와 기술지원을 제공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북한의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도 IMF의 실사를 통한 경제통계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임.

〈북중관계〉

국민일보(5.15), 동아일보(5.16), 아주경제(5.23), 연합뉴스(5.9), 중앙일보(5.21), 한국경제(5.9), RFA(5.2, 5.18), VOA(5.4)

북중 연이은 정상회담과 시장의 반응

지난 3월 첫 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단동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접경지역의 북한 부동산 암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임. 중국 석탄 수입상들은 북미정상회담 이후를 염두에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금지 품목인 수산물에 대해서도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밀수가 증가하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월부터 북한 노동자 파견도 재개되었는데,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져 일거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짐.

김정은 위원장은 첫 방중 이후 40여일만에 다롄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짐. 북한 매체의 공식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와 강화를 강조하며 '실리'를 챙기고, 시 주석은 북한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이라는 새 전략 노선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중국의 개입 '명분'을 확인하였음. 일주일 뒤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 20여명이 중국의 경제건설과 개혁·개방 경험의 학습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함.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과 첨단농업 기술 현장인 농업과학원 등을 방문하였고, 시안, 상하이 등지로 이동하며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함.

3월 북중 교역액은 지난해와 비해 여전히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전달에 비해 수출, 수입액이 모두 소폭 상승했고, 특히 수입품목에는 소량의 정유제품이 포함되기도 하였음.

<북러관계>

연합뉴스(5.29), 중앙일보(5.30), RFA(5.7), VOA(5.31)

교류협력을 위한 양국 간 회담 개최

5월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러시아 방문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회동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지도부 사이에서 새로운 정치적, 전략적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은 보도함. 아울러 북러 고위급 왕래 활성화와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차량 전용 다리 건설과 관광 증진을 위한 회담을 개최 할 예정이라고 밝힘. 차량 전용 다리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1959년 개통된 철도 다리 하나만 있어, 향후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여 다리를 건설한다는 분석임. 또한 양국은 비자 발급 간소화나 무비자 제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간 관광업 증진을 논의 할 것이라는 설명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5.9, 5.15)

아래 표는 5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세계식량계획 (WFP)	2018. 4	영양식품	1천 200톤의 영양식품	4월, 북한 주민 약 50만명 에게 영양식품 제공
미국친우봉사단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2018	농업 기술지원	매년 약 40만 달러	5월, 쌀 생산량 진작을 위 한 농업기술 지원의 성과 확인 차 농업 전문가와 미 국 봉사 요원들 방북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5.02] 단둥 시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 (RFA)
- [2018.5.03] 대북제재가 바꾼 일상…“비닐하우스로 일군 채소, 전국에 포장배송” (데일리 NK)
- [2018.5.03] 북, 원산해양관광지구 건설에 주민 동원 (RFA)
- [2018.5.03] 北, 빈부격차 심화..“평양 중구역 아파트, 외곽과 56배 차이” (데일리 NK)
- [2018.5.04] 3월 북중 교역액 소폭 상승…중단됐던 석유제품 거래 재개 (VOA)
- [2018.5.04] 김동연, 국제기구의 남북경협 지원 노력 (매일경제)
- [2018.5.07] 러 극동개발부 “다음달 북-러 관광산업 증진 논의” (RFA)
- [2018.5.08] 북, 원산에 대규모 카지노호텔 건설 추진 (RFA)
- [2018.5.09] 김정은 또 訪中…시진핑 만났다 트럼프 보란 듯 ‘北·中 밀월’ 과시 (한국경제)
- [2018.5.09] 미NGO, 신규 농업기술 지원 위해 방북 (RFA)
- [2018.5.09] 평양 빌라가 2억 2천만원…북한 부동산에 눈독 들이는 중국 (연합뉴스)
- [2018.5.10] 김동연, 북 IMF 가입 앞두고 국제사회 지원받는 방법 검토 (매일경제)
- [2018.5.14] 북 평양시에 아파트 반지하 월세집 증가 (RFA)
- [2018.5.14] 평양시민도 경제악화로 반발.. 배급 악화와 정전으로 “먹을 것도 전기도 주지 않는다” (아시아프레스)
- [2018.5.14] 北 공공 인프라 개발 지원 유엔 안보리 사전승인 필수 (한국경제)
- [2018.5.14] 北,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 속도전…“9월 정권수립일 완공목표” (한국경제)
- [2018.5.14] 美, 북한판 ‘마셜 플랜’ (조선일보)
- [2018.5.15] WFP, 올해 대북지원 규모 변경 계획 없어 (RFA)
- [2018.5.15] 북한 고위급 20여명 방중, 개혁개방 학습하나 (국민일보)
- [2018.5.15] 북한판 마셜플랜 땀 AIB · WB 등 국제기구 지원 검토 (한국일보)
- [2018.5.16] 中무역상들, 北석탄 수입 재개 움직임 (동아일보)
- [2018.5.18] 북, 공장기업소 자율 경영체제 적극 장려 (RFA)
- [2018.5.18] 중 파견된 북 여성노동자들 일거리 없어 고심 (RFA)
- [2018.5.21] 신의주에 10층 빌딩 신축 붐…중국 상인, 북 수산물 선점 경쟁 (중앙일보)
- [2018.5.23] 北 친선참관단, 마윈 만났을 가능성 (아주경제)
- [2018.5.23] 북, 국영 공장 노동력 개인사업자에 파견 허용 (RFA)
- [2018.5.24] 북한군 장교들 주택난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 (RFA)
- [2018.5.24] 트럼프 “北, CVID 빠른 이행때 과거 한국처럼 경제 전폭지원” (매일경제)
- [2018.5.26] 北김정은, 원산 건설현장 시찰…“내년 4월까지 완공” (연합뉴스)

- [2018.5.27] 북, 적산 전력계 보급사업 지지부진 (RFA)
- [2018.5.28] 북한 중국서 수입하는 LPG 용기 시세 (RFA)
- [2018.5.28] 전력난 속 '전기 도둑' 횡행, 누전으로 화재와 감전사 다발... 당국도 문제시 (아시아프레스)
- [2018.5.28] 집데꼬, 북한의 시장 어디까지? (RFA)
- [2018.5.29] 러시아 외무차관-주러 북한 대사 면담..."한반도 정세 논의" (연합뉴스)
- [2018.5.29] "북한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 될 것" (매일경제)
- [2018.5.29] 北 "우리 힘으로 잘살 수 있다" 경제보상론에 거부감 (한국일보)
- [2018.5.30] 북·미 회담 앞두고 중국 이어 러시아 버팀목 세우는 북 (중앙일보)
- [2018.5.31] 러시아 외무장관, 김정은 위원장 방러 초청 (VOA)
- [2018.5.31] "비핵화 보상 첫 단추는 북한 IMF 가입...국제지원 마중물 역할" (중앙일보)